

중소학교 '활력 운동장' 건설 전면 가동

— 학교 운동장을 아이들 활력을 발산하고 흥미 자극하는 '즐거운 장'으로

길림성교육청은 최근 2024년 민생의 실제적인 일 하기 항목의 하나인 중소학교 '활력 운동장' 건설을 전면적으로 가동했다.

중소학교 '활력 운동장' 건설은 체육수업 및 체육활동 배치를 최적화하고 학교 체육활동 시설을 개선하며 학생 체육동아리 건설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자주적으로 교실에서 나와 운동장으로 향하도록 인도하고 학교가 체육으로 덕을 키우고 체육으로 심리상태를 조절하는 기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매일 최소 1시간 이상의 신체단련과 충분한 휴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학교 운동장을 아이들이 활력을 발산하고 흥미를 자극하는 '즐거운 장', 운동을 즐기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장', 신체와 정신을 강화하고 의지를 단련하는 '훈련장'으로 만드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활력 운동장'을 구축하는 학교는 하루 30분의 중간휴식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활동 내용을 설계할 수 있는데 라지오체조, 체조춤, 구류, 줄넘기, 무술 등 학생들이 즐기는 형식들이 포함된다. 일부 소학교들에서는 이미 체육수업 1일 1교시, 오전 오후 각각 1차례 중간휴식시간 활동 목표를 실현했다. 길림성교육청 체육위생예술교육처 부처장 교동생은 올해 길림성의 중소

학교 '활력 운동장' 건설은 우선 300개 학교에 건설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중 빙설스포츠, '축구, 룽구, 배구 3대 구류' 및 룽상, 체조, 탁구, 바드민턴, 테니스, 무술 등 체육동아리를 특색 항목으로 하는 '활력 운동장'을 각각 100개씩 선택할 계획이며 길림성의 다양한 운동특색학교의 시범역할과 자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활력 운동장' 건설은 우선 300개 학교에 건설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중 빙설스포츠, '축구, 룽구, 배구 3대 구류' 및 룽상, 체조, 탁구, 바드민턴, 테니스, 무술 등 체육동아리를 특색 항목으로 하는 '활력 운동장'을 각각 100개씩 선택할 계획이며 길림성의 다양한 운동특색학교의 시범역할과 자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넷

'눅기식' 책결상, 학생들 편안한 낮잠 보장

점심이다. 귀주성 정안현 봉의가두 중심소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생 왕이녕은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왔다. 낮잠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익숙하게 책상을 세우고 발판을 내리고 의자 등받이를 조절하는데 의자가 순식간에 '작은 침대'로 변신한다. 왕이녕은 '작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달콤한 낮잠에 빠져든다.

이와 유사한 광경이 전국 여러 지역의 소학교들에서 펼쳐지면서 갈수록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귀주성 복천시제 4소학교에는 약 3,5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낮잠을 잔다.

2022년 학교에서는 '눅기식' 책결상을 도입하고 한계 학급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았다. 학교 교감 교원 서원승은 "시범 운영 효과가 좋아 학교는 720여개 '눅기식' 책결상을 구매해 1학년 학생들이 편하게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절강성도 마찬가지다. 항주시 전당 강구에서는 2023년 5월 특별 재정 570만원을 투입해 현지 46개 학교 5만 7,000명 학생들의 '누워자기' 낮잠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항주 권덕시는 2023년에 시와 향진 가두 학교에 재정 600여만원을 투입해 낮잠 공간 100여곳을 개조하는 등 시 전체

중소학생 3만 4,000여명이 누워서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했다.

강서성정부는 '눅기식' 책결상 학교 도입 시범 운영을 2024년의 10대 중점 민생실사로 편성해 조건에 맞는 지역의 선행 시범 운영과 중소학교 '눅기식' 책결상 개선 확대를 지원했다. 여타 학교는 현실에 맞게 점차적으로 '눅기식' 낮잠 책결상과 낮잠 패드 등 방안으로 점차 중소학교에서 '누워자기' 낮잠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눅기식' 책결상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왕이녕은 '눅기식' 의자에서 자면 편안하다고 말한다. 복천시제 4소학교 1학년 학생 퉁용옥도 예전에 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나면 손과 발

이 저러났지만 지금은 누워자기에 편안하다고 말한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누워자는 낮잠'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장기간 엎드려 자는 것은 경주에도 좋지 않고 눈에도 압박이 가해져 부종 심지어는 근시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안현교육국 부국장 장위동은 "봉의가두중심소학교는 현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낮잠' 사업을 시행한 학교로 이후 노하우를 종합해 조건에 맞는 학교를 대상으로 점차 '편안한 낮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낮잠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민넷



'제 9 회 중국 우주의 날' 다양한 행사 펼쳐져

24일 '제 9 회 중국 우주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우주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우주 테마 행사를 가졌다. 사진은 이날 귀주성 개양현 동호소학교 우주과학보급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우주과학 지식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

/신화넷

회제 'AI 자습실', 학습 효율 높일 수 있을까?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AI 응용 장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최근 절강성의 일부 중소학교 주변에 많은 'AI 자습실'이 생겨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AI 자습실'이 과연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AI 자습실'은 혁신일까 걸치레일까?

기존의 자습 모드와 달리 각 AI 자습실에는 감독관이 배치되어 컴퓨터 백그라운드에서 정답률, 집중 시간, 미숙한 지식 요점 등 매 학생의 학습

진도를 파악한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정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여러 자습실을 조사한 후 기자는 AI 자습을 선택한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무라된 지식점을 확인하고 보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AI 학습 모식을 접한 후 우려를 보였다.

학부모 왕녀사: 문제를 자주 풀면 사유가 굳어진다.

학부모 두녀사: 아이들이 미리 배우고 미리 알고 있으면 수업시간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도 3세부터 7세까지 아동은 AI 학습기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AI 학습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능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전문가에 따르면 AI 능력 부여 정밀 교육이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기업이 부모의 '특점' 심리

에 맞춰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면 스마트기기의 '도전적 업그레이드'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투입됨에 따라 일부 야간 탁육기구와 AI 자습실이 결합되어 은행 학과 양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관련 부문에서 가능한 한 빨리 스마트 교육 장비의 감독관리 공백을 메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인민넷-조문판

시 동태

2024년 대학교 기초학과 학생모집 개혁 시범은 이렇게

최근 여러 대학교들에서 2024년 기초학과 학생모집 개혁 시범(强基计划, '강기계획')으로 략칭) 학생모집 략장을 발표하고 온라인 등록을 시작했다. '강기계획'이란 무엇인가? '강기계획' 학생모집 전공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2024년 '강기계획' 등록 절차와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자.

'강기계획'이란 무엇인가?

2020년 1월, 교육부는 <일부 대학교에서 기초학과 학생모집 개혁 시범 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2020년부터 일부 대학교에서 기초학과 학생모집 개혁 시범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을 략칭 '강기계획'이라고 부르며 기존 대학

교의 자주적 학생모집 방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강기계획'은 주로 국가 중대 전략 수요를 위해 봉사하는 데 뜻이 있는 동시에 종합적 자질이 우수하거나 기초학과가 특별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며 첨단칩과 소프트웨어, 스마트과학기술, 신소재, 선진제조와 국가 안전 등 관건적 분야 및 국가의 인재 부족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초점을 맞춰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력학, 기초의학, 육종 및 력사, 철학, 고문자학 등 관련 전공의 학생을 중점적으로 모집한다.

'강기계획'은 어떤 인재를 선발하는가?

'강기계획'의 지도사상과 원칙은

국가 전략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서 일련의 뜻이 있고 후취가 있으며 전부적 재능이 있는 청년학생들을 모집하여 전문적인 양성을 통해 국가의 중대한 전략 분야에 후비인재를 수송하게 된다. 국가 중대 전략 수요에 봉사할 뜻이 있고 동시에 종합자질이 우수하거나 기초학과가 특별히 우수한 학생을 주로 선발한다.

학생모집 전공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강기계획'은 기초학과의 지지 인솔 작용을 부각시켰는데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력학, 기초의학, 육종 및 력사, 철학, 고문자학 등 관련 전공의 학생을 중점적으로 모집한다. 첨단칩과 소프트웨어, 스마트과학

기술, 신소재, 선진제조와 국가안전 등 관건적 분야 및 국가의 인재가 부족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시범대학교는 무엇을 하는가?

'강기계획' 시작단계에서는 일부 '일류대학' 건설 대학교 범위에서 대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을 진행한다. 대학교는 교육부에 신청하는 동시에 관련 전공의 학생모집과 인재양성 일체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2022년 기존의 36개 '강기계획' 시범대학교의 기초에서 동북대학, 호남대학, 서북농림과학기술대학 등 3개 대학교에서 '강기계획' 시범을 전개했고 학생모집 규모, 전공, 심사방법 등도 조정되었다. '강기계획'은

공평 공정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다각도 심사 평가 모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기초학과 첨단 혁신 인재 선발 양성의 효과적인 기제를 점차적으로 구축했다.

시범대학교 명단 (39개)

북경대학, 중국인민대학, 청화대학, 북경항공항공천대학, 북경리공대학, 중국농업대학, 북경사범대학, 중앙민족대학, 남개대학, 천진대학, 대련리공대학, 길림대학, 할빈공업대학, 복단대학, 동제대학, 상해교통대학, 화동사범대학, 남경대학, 동남대학, 절강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 하문대학, 산둥대학, 중국해양대학, 무한대학, 화중과학기술대학, 중남대학, 중산대학, 화남리공

대학, 사천대학, 중경대학, 전자과학기술대학, 서안교통대학, 서북공업대학, 랴주대학, 국방과학기술대학, 동북대학, 호남대학, 서북농림과학기술대학.

'강기계획' 등록 절차

3월말부터 4월까지 략장을 공포하고 온라인 등록을 한다. 6월, 수험생은 통일적인 대학입시에 참가한다. 7월 5일전, 대학교는 종합성적을 절산하여 우수한 학생을 모집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일정 안배에 변동이 있으면 대학교에서 공포한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넷

연변대학, 정판룡교육기금 시상식 개최



연변대학 정판룡교육발전기금회가 주최하고 일류학과건설학술위원회, 일류학과건설학목조, 외국어학원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일류학과건설 및 정판룡교육발전기금 시상식이 4월 16일 연변대학 과학도서관 회의실에서 있었다. 학교 당위 부서기며 교장인 채홍성, 전임 교장이며 일류학과 선임 교수인 김병민, 부교장 주위홍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채홍성 교장은 축사에서 정판룡교육발전기금의 설립은 교육사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우수한 교원과 학생을 장려하며 과학연구항목을 지원하여 학교의 장원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두었다고 강조하면서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학교는 정책 보장, 성과 장려 등 방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광범한 교원들에게 인재 양성에 전념하고 마음놓고 과학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줌으로써 전체 교원이 보다 양양된 투지, 보다 실무적인 작품, 보다 혁신적인 사유로 연변대학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장을 함께 쓰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민 전임 교장은 총화발언에서 정판룡교수의 학습 사업 경력을 회고하면서 정판룡교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달함과 동시에 수상한 교원들이 정판룡교수의 풍부한 정신적 유산을 계승 발양해 과학연구 교수 능력을 가일층 향상하고 솔선수범하면서 학생들이 인재가 되는 안내자가 되고 용감하게 학교 사업 발전의 활력소가 되며 엄격하게 학문을 다스리고 직업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학교 교육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끊임없이 추동하기를 바랐다.

외국어학원 박은희 원장이 정판룡교육발전기금의 발전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외국어학원 최일 부원장이 '정판룡학술상', '정판룡교수상', 일류학과 건설 '우수학술성과 장려' 수상 교원 명단을 략독했다. 채홍성, 김병민, 주위홍과 일류학과 명예강좌교수 김호용, 출판사 리사장 안국적으로 조성해줌으로써 전체 교원이 보다 양양된 투지, 보다 실무적인 작품, 보다 혁신적인 사유로 연변대학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장을 함께 쓰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활동에는 학교 관련 직능부문과 학원 책임자, 정판룡교육발전기금 관련 책임자, 수상한 교원 및 학생 대표들이 참가했다.

/연변대학넷

장춘자동차직업기술대학 설립, 첫 본과생 모집

현재 본과 전공 6개 전문대학 전공 33개

장춘자동차직업기술대학 설립 대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본교 흥기자동차브랜드봉사중심에서 거행되었다.

장춘자동차직업기술대학은 동북 지역에 첫 국립직업본과대학으로서 길림성에 직업교육 본과대학이 없던 력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장춘자동차직업기술대학은 '14.5' 기간에 설립된 전국 첫 직업본과대학이다. 학교의 전신은 1952년 중국제 1자동차공장에서 세운 장춘자동차기술학교로서 새 중국에서 자동차공업 인재를 전문 양성하는 첫 학

교였다. 학교는 '자동차산업 발전에 봉사하고 사람의 전면 발전에 봉사한다.'는 운영 리념에 따라 생산, 교육, 과학, 도시 융합 창조 혁신 발전을 적극 탐색하면서 전기의 준비사업을 거쳐 금년 1월 교육부로부터 장춘자동차직업기술대학 설립을 비준받았다.

장춘자동차직업기술대학은 현재 6개 본과 전공에 33개 전문대학 전공을 두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본과 전공으로는 신에너지 자동차공정기술, 지능네트워크자동차공정기술, 로보트기술, 자동차동사공정기술, 물류공정기술, 기계설계제조및자동화 등 6개 전공이 있다.

/장춘도시석간